

제 1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No. 1

대학	카자흐스탄 국제관계 및 세계 언어 대학교	학과	한국어	학년	4	이름	하이다로바 아이게름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	---------------

1등

100

200

300

400

500

친구

친구 ... 정말 지만 큰 의미가 담겨 있

두 글자의 단어이다.

버스를 타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

에 가는 중이였다. 시절은 겨울이고,

크리스마스를 할머니랑 보내고 싶어서

먼 길을 가고 있었었다. 지난 2007

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고 있

었다. 갑자기 버스가 멈추고 어떤 할

아버지가 버스 안으로 돌^어오시고 네

옆에 있는 빈 자리에 앉으셨다. 5분

후에 우리는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기

시작했다. 어르신께서 어딜 가고 있

냐고 물었다. 할머니를 보고 싶어서,

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라고 친절하게

대답을 했다. 갑자기 할아버지의 눈

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. 잠시 후에

내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으셨다. 할

아버지는 소중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

구가 돌아가서 장례식에 가고 있

다 이야기를 했다.

,, 오래 전에 군대에 간 적이 있

다.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친구를 사

귀

어 봤죠. 많은 친구 중에 훌륭한 한

번이 있었었다. 어느 날 전쟁이 시작

제 1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No. 2

대학	카자흐스탄 국제관계 및 세계 언어 대학교	학과	한국어	학년	4	이름	아이다로바 마이게름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	----------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다, 전쟁은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
시간이었다. 그 때 밥 한 끼를 나누
어 먹었던 사람은 바로 그 친구이었다.
언제든지 뭐든지 거절 없이 도와주는
친구이었지. 그 친구가 옆에 있으면
어떤 상황이라도 자기를 행복하게 느끼
고, 옆에 싸움이 일어나도 자기를 안
정하게 느끼었다. 적이 들어와도 나를
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 논
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. 그 때
친구한테 제대로 잘 해 주지도 못했네."
라고 눈물이 초록 초록 내리기 시작했
다. 문득 어렸을 때 책에서 봤던 어
느 명언이 생각났다. "힘들 때는 친
구는 친구이다. " 그 때 너무 어려서
그 명언의 뜻을 몰랐는데 이제야 알았
다. 힘들 때 아무 말도 안 해 주고
그냥 옆에 있어 줘서 위로 받을 수
있었다. 그런 사람을
친구라고 할 수 있다, 하지만 내 생
각으로 진정한 친구의 또 다른 점이
있다. 힘들 때 같이 힘들어 해 주는
사람을 친구라고 하지만, 기쁠 때 같
이 기뻐해 줄 사람도 친구라고 한다.
힘들어 해 주는 것보다 어떤 좋은 일

제 1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No. 3

대학	카자흐스탄 국제 관계 및 세계 언어 대학교	학과	한국어	학년	4	이름	아이다로바 아이게름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	----------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이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
친구가 많지는 않다. 어떤 사람에게도
그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.
버스가 멈췄었다. “자네는 좋은 친구
가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도와
주고, 그 친구를 아껴라!” 하며 버
스를 내리셨다. 지난 40분 동안 그
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해서 많은 것을
배웠다. 도대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
무엇이고,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누구
일까라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. < 내
머리 속에 물음표가 가득했다. 내가
친구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
진정한 친구를 찾았다. 드디어 그 친
구를 찾았다.
지난 겨울 방학도 할머니 댁에서 보
냈었다. 그 시골에서 아무도 모르는
나는 하루 종일 그냥 집 안에만 있었
다. 너무 지루했었다. 어느 날 할머
니가 예쁜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
들어오셨다. 옆에 있는 아이가 이뽕
집 아이이고, 같이 놀고 남은 겨울
방학을 재미있게 보내라고 했다. 나
는 나랑 동갑이었다. 그 때부터 모
지루함과 심심함이 문득 살아졌다. 그

제 1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No. 4

대학	카자흐스탄 국제 관계 및 세계 언어 대학	학과	한국어	학년	4	이름	아이다로바 아이게를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	---------------

대 그 친구는 나에게 비 오는 날에
 하늘에서 생김 빛나는 태양 같았다,
 우리는 빨리 친해졌다. 몇 하루를 같
 이 보내고 많은 이야기들 나눴다.
 정공은 한국어이고 학교에서 배웠던 것
 들 한국 가서 실제로 경험해 보고 싶
 다는 내 오랜 꿈도 이야기했다. 그
 날 밤에 한국어 교수님이 전화하시고
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
 축하해줬다.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바
 로 그 친구를 찾았었다. 내 꿈이 이
 뉘 지는 것을 듣고 그 친구는 나보다
 더 목 기뻐했다. 짧은 시간에 내 마음
 을 알아 주고,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
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바로
 그 사람이었다. 그 친구에 존재를 내
 가 잠시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았다.
 이제 내가 가고 있는 시골에도 다
 왔다. 버스에서 내리고 그 친구를 보
 러 달려가던 내 가슴이 떨렸다. 그
 친구를 내 기억 속에서 떠오르게 한
 그 할아버지 이야기... 친구에 대해서
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
 되었다.
 이제 그 친구 집 앞에 서 있었다.

제 1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No. 5

대학	카자흐스탄 국제 관계 및 세계언어 대학원	학과	한국어	학년	4	이름	아이게름 아이다로바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	----------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